

양극화 깊어지는 게임사 성적표... 해외시장 성과에 달렸다

게임사마다 차별화 글로벌 전략 카카오게임즈, AI로 전환점 찾기 엔씨, 인력축소 등 비용 절감 박차 위메이드·넷마블, 해외로 '힐힐'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게임사들 간 격차가 두드러지며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신작 출시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 차이가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 간 뚜렷한 실적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먼저 3분기 실적 발표를 낸 엔씨소프트는 12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3분기 영업손실은 1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비용이 2% 증가했다. 펠어비스 역시 3분기 영업손실 92억원으로 적자를 이어갔다. 카카오게임즈는 3분기 영업익 5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80.1% 감소한 성적표를 받았다.

실적 부진으로 분위기가 침체된 게임사와 달리 실적 호조로 미소를 짓고 있는 게임사들도 있다. 넷마블은 3분기 영업익 65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위메이드 역시 영업익 51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 회사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영업익 실적을 기록했다. 크래프톤은 3분기 영업익 3244억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실적 희비 엇갈리는 게임사들 관련 이미지.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4% 오른 성과를 이뤘다.

주목할 점은, 주요 게임사 실적 구도가 지난 2분기와 비교했을 때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분기 영업익 88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한 실적을 받아들였다. 펠어비스도 지난 2분기 영업손실 58억원을 달성하며 적자 전환했다.

반면, 크래프톤은 2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이뤘다. 2분기 영업익 332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152% 증가했다.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게임사들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성과를 거둔 게임사들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적 고착화를 가르는 요인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출 성과가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엔씨소프트의 아시아 지역 매출은 전분기 569억원에서 이번 3분기 494억원으로 감소했다. 북미·유럽 지역 매출 역시 전분기 339억원에서 올해 3분기 282억원으로 줄었다.

3분기 해외 매출액 5005억원을 달성한 넷마블과 해외 매출이 전분기 대비 43% 늘어난 1668억원을 기록한 위메이드, 지속적인 투자와 인도 사업으로 해외 사업 확장에 나선 크래프톤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국내 게임사들의 실적 타개 방안은 단연코 글로벌 시장 공략이다.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글로벌 실적 확대, PC·콘솔 플랫폼 확장, 장르 다변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 인게이지먼트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 고도화를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허진영 펠어비스 대표 역시 신작 '붉은사막'을 앞세워 국내의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뜻을 밝혔다. 허 대표는 "신작 '붉은사막'의 마케팅 작업을 이어가며 순조롭게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게임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만큼 출시 가시성이 높아졌다. 연말에 있을 글로벌 게임 행사에 참가, 이용자와 소통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비용 절감에 집중함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흥원준 엔씨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분사, 희망퇴직, 프로젝트 정리 등의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분사 기준 인력이 현재 4000명대 중반 이상인데, 내년 중으로 3000명대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력 비용 절감 계획을 밝혔다.

이어 회사에서 개발 중인 게임 '아이온2'를 언급하며 "아이온2는 생각했던 이상의 게임이다. TL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LG생활건강

스폰형 고양이간식 냥스폰

이마트 몰리스펫샵 입점

LG생활건강과 일본 유니참 그룹의 합작회사인 엘지유니참의 반려동물용품 브랜드 '엘지유니참펫케어'가 새로운 스폰 타입의 고양이 간식 '냥스폰'을 이마트 몰리스펫샵에서 판매한다. 냥스폰이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한 건 이마트24 편의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냥스폰은 고양이가 좋아하는 참치와 닭 가슴살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스폰형 고양이 간식이다. 스폰 모양으로 만들어서 간편하게 먹일 수 있고, 고양이의 입맛을 사로잡는 다양한 맛과 영양소가 풍부한 제품이다. 2019년 일본에서 처음 출시한 직후 현지 인기 호텔(할인잡화점)에서 품질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대대적인 인기를 모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고양이 박람회 '궁디광광 캣페스타'에서 처음 선보였는데 이후 매 행사마다 완판을 달성하며 큰 인기를 모아가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조미료 프리(Free), 착색제 제로(Zero)'의 무(無) 첨가 냥스폰을 출시해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넥슨 필두 출격완료

'지스타 2024' 최대규모 개최 오디오리움 등 벅스코 전체 활용 두 배로 확대된 전시 규모로 눈길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 2024'가 20주년을 기념해 역대 최대 규모로 부산 벅스코에서 개최된다. 이번 지스타는 게임업계 만형인 넥슨이 메인스폰서를 맡게 되면서 이목이 쏠린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스타 2024'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총 3281부스 규모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커졌다. 주최 측은 2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지스타는 부산 해운대 벅스코에서 열리는 가운데 ▲제1전시장 ▲제2전시장 ▲컨벤션홀 ▲오디오리움 ▲옥외전시장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쇼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넥슨을 필두로 크래프톤, 넷마블, 웹젠, 펠어비스, 그라비티,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하이브IM 등 대형 게임사들의 신작 공개도 이어진다. 우선 넥슨은 메인 스폰서로서 300부스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해 ▲MOBA 배틀로얄 '슈퍼바이브' ▲3D 액션 RPG

G '프로젝트 오버킬' ▲하드코어 액션 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 등 신작을 공개한다.

또한 '넥슨 30주년 기념존'도 마련했다. 오는 16일 30주년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테일즈위버' 등 넥슨 대표 게임의 배경음악을 연주해 넥슨의 역사를 선보일 계획이다.

크래프톤은 이번 지스타에서 ▲하이파이 러시 ▲딩컴 투게더 ▲프로젝트 아크 ▲인조이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콘도콩 바콩부콩 루루핑(마



지난해 지스타2023가 열린 벅스코 전경.

법소녀 루루핑) 등 5종 게임의 시연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덩컴 투게더와 프로젝트 아크는 지스타에서 최초 공개하며 시연 기회도 마련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어그

남성 고객들 공략 성공 '겨울 국민템'으로 인기

어그가 여성에 이어 남성 고객까지 사로잡으며 '겨울 국민템'으로 떠올랐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하는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어그(UGG)는 올해(1~11월 현재) 남성 고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이달에도 두 자릿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어그부츠는 여성들만 신는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복고 열풍을 타고 가장 트렌디한 제품으로 떠오르면서 남성 고객 수요가 급격히 높아졌다. 스타일과 기능성을 겸비한 신발로 어떤 착용에도 조화롭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패션에 관심 많은 2030 남성 고객들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어그 '타스만 웨더 하이브리드', '뷰트 바머' 착용 컷. /신세계인터내셔널

위메이드맥스, 손면석 신임대표 선임

위메이드의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전문 자회사인 위메이드맥스가 이사회를 통해 손면석씨를 신임 대표이사(사천)로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위메이드맥스는 이길형, 손면석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이번 각자대표 체제 도입은 위메이드맥스의 게임 개발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확장, 사업 경쟁력 확보 등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게 위메이드 측 설명이다.

손면석 신임 대표는 2020년 게임 개발사 매드엔진을 설립하고, 국내외에서 큰 성과를 거둔 '나이트 크로우' 계



발을 이끌어왔다. 앞으로 손 대표는 위메이드맥스의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하며, 신규 지식재산권(IP) 확보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손 대표는 매드엔진의 대표직도 유지하며 현재 매드엔진에서 개발 중인 신작 출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위메이드맥스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매드엔진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동국제약, 미간 주름개선 '비에녹스주' 출시

동국제약이 보톨리눔 특신제제 '비에녹스주'를 국내 공식 출시한다.

동국제약은 지난 달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에 대한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보톨리눔 특신제제인 '비에녹스주'에 대한 신규 거대처 발굴과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함께 진행했다. 이어 10월 30일, '비에녹스주'에 대한 시판 전 품질검증 단계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 출하 승인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비에녹스주는 눈썹주름근과 눈살근의 활동과 관련된 중등중에서 중등의 미간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효

능 및 효과에 대한 국내 허가를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았다. 감압 건조 방식을 채택해 공정 시간을 단축하고 단백질 손상을 최소화했으며, 국내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동국제약은 지난 9월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부 'dkma' 출범 기념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최근 13년간 꾸준히 사용되어 온 HA 필러 '벨라스트'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새로 출시한 프리미엄 HA 필러 '케이블린', 스킨부스터 '다하이브', 창상피복제 '마데카MD크림·로션'을 출시한 바 있다.

/이세경 기자